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조희정^{1*}, 정유진²

¹평은 미술심리치료 연구소 대표, ²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외래강사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Hee Chung Cho^{1*}, Yu Jin Jung²

¹Director, Serenity Art Therapy Research Center

²Lecturer, Graduate School of Art Therapy, CH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며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실험군 대조군을 무선배정하고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후에 K-BDI와 직무만족도 검사를 통해 우울 점수와 직무만족 점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우울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집단미술치료는 대조군 대비 실험군 공무원의 직무만족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직무만족감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 공무원 조직의 생산성 및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미술치료, 지방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on the de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7 to March 2018 and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twenty public officials in North Chung-Chung Province. They randomly placed in two different group : 10 in experimental group, 10 in control group. To measur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K-BDI and Job Satisfaction Scale were used a week before and a week after the intervention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Data was analyzed using paired t-test with SPSS Statistics 23.0. The result was as follows :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to alleviate Depression.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change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f effectiveness of group art therapy.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not only helping public officials' individual mental health but also enhancing productivity of local government and the quality of service to local residents in Chung-Chung province area.

Key Words : Art Therapy, Local Government Officials, Job Stress, Depression, 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ee Chung Cho(serenity.atrc@gmail.com)

Received February 26,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April 27, 2021

Published May 28, 2021

1. 서론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으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폭넓은 권한 위임과 통제완화는 각 지방 정부에 대해 독자적 정책 결정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했다[1,2]. 지방자치제는 기존 행정제도의 권력 관계 및 이해관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지방 정부들은 각 지역의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심하게 되었다[3,4]. 더불어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영향으로 민간 경영 차원의 조직관리론과 인사체제가 도입되며 공무원 공직사회 전반의 긴장감도 높아지게 되었다[5]. 또한 지방 정부가 지역에 적합한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증대되었고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무도 가중되었다[1-6].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민들의 자유롭고 질서 있는 사회생활이 영위되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2]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대표되며 직무 스트레스가 적을 것으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공무원 조직의 축소와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철밥통’이라는 말로 대표되며 폐쇄적이었던 공무원 사회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7]. 이렇게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행정 운영 방식에 성과 중심 모델을 도입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공무원 조직 간, 구성원 간의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각 지방 정부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는 지방자치제 이행 전에 비해 증가되었다[2,8].

2015년 발행된 ‘서울시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조직 내 공무원은 시민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공무원들에게 보다 높은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명감, 각종 민원과 주민 요구를 조율해야 하는 책임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9]. 시민의식 향상과 다문화가정 증가 등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가 복잡해지는 경향과[2] 공무원들에 대한 보다 높은 전문성, 책임성, 윤리성에 대한 요구는[1,2,8] 상기한 지방자치제도의 행정체계 변화와 함께 과거에 비해 지방 조직 공무원들에게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지방 공무원들이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켰다[2, 5-8].

업무상 요구 사항들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을 벗어나거나, 근로자의 바래과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해로운 신체적·심리적 반응인 직무 스트레스는[10]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의 유의미한 상관성은 선행연구들에서 입증되어왔지만[11-13], 대부분 업무 긴장도가 높거나 직무 자체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소방, 경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8].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우울장애 평생 유병률은 8.7%로 일반인보다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으며, 우울장애 수준의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26.7%가 중증도 우울, 19.4%가 경미한 우울을 경험하였다는 보고는[2] 일반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다.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직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은 직무만족 뿐 아니라,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 또한 공무원의 직무는 정책 결정과 사회통제의 기능과 관련되기에 시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민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1-4].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때 행정수행 측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지방 정부의 지역 발전을 위한 목표달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직무 불만족,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부정적 요인은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개인의 건강 측면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정책집행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폭넓은 파급효과를 갖는다[1,2,6]. 오인수 등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직무만족은 조직 성과와는 정적인 관련성이, 이직 의도와는 부적인 상관성이 확인되었다[15].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관리를 통해 직무만족과 삶의 대한 만족을 재고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의 중요한 사안이 된다[1-3,15].

직무만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를 좋아하는 정도 혹은 직무 관련 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태도를 지칭한다[16]. 피고용인의 직무 불만족은 피고용인의 소진(burnout)을 초래하고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발생시키며[5] 소진은 피고용인의 결석률, 이직률 건강비

용과 직결된다. 34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Tait 등[17]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삶의 만족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만큼 직무 만족은 조직 관리에 주요한 요인이 된다[2,4]. 따라서 지방 정부 조직의 구성원인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무 만족, 삶의 만족, 조직 만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5]. 또한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지방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조직 및 인사 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될 필요성이 있다.

집단미술치료는 미술 작업과정에서 경험하는 창조성에 의한 치료 효과와 더불어 집단에서의 관계성으로 인해 치료적 효과가 촉진된다[18,19]. 우울을 경험하는 개인은 삶의 사건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반응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자신 내면의 심상을 탐색하고 집단 구성원 안에서 안전하게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며 지지받는 등의 지지적 상호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울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20]. 집단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업무량 과다, 역할 갈등, 책임 압박감 등의 직무 스트레스에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21], 김미혜 등[22]이 성인 및 노인을 대상의 우울 완화를 위한 집단미술치료연구 24편을 메타분석한 결과 Cohen의 효과 크기 해석에 따라 '큰' 효과 크기가 도출된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우울에 집단미술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제까지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미술치료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21,23-24]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우울과 직무만족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정유진 등의 선행연구[23]에서 사회적 지지 집단미술치료가 조직 지향 변수인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향하는 객체를 달리 하여 보다 개인 차원의 변수인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직무만족은 삶의 만족과도 관련성을 갖으며 나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조직 성과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4].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의 정신건강 관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 개인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조직 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적용가능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상기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른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무선배정을 통한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이며 충청북도 A 시청 실무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충청북도 A 시청 내 대회의실에서 주 1회 120분, 8회기의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했다. 집단미술치료 실시 1주일 전, 실시 1주일 후 실험군 대조군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K-BDI, 직무만족도 검사를 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예비실험을 진행한 후,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Table 1과 같다. 실험집단은 상기한 일정에 따라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통제집단에 대해서는 윤리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검사 이후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유 관련 특강을 희망자에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Group	Pre-test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al	O1	X1	O2
Control	O3		O4

O1, O3: Pre-test (K-BDI, Job Satisfaction)
 X1: Group Art Therapy
 O2, O4: Post-test (K-BDI, Job Satisfaction)

2.2 연구 도구

2.2.1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리치료, 미술치료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구성하였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회기의 구성은 Yalom과 Leszcz[25,26]이 언급한 보편성, 이타주의, 응집력

등의 집단의 치료적 요인들과 House[26,27]의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3가지 지지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House가 제시한 지지적 요소는 총 네 가지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공감, 경청 등의 정서적 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 조언 등의 정보적 지지, 돈이나 노동력 등의 도구적 물질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인정과 의사존중 등의 평가적 지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는 물질적 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지적 요소를 적용했다.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고, 유사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개인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집단원의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며, 미술치료 작품 완성 후에 감상하며 의견을 나누고 상호 피드백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예비실험을 통해 박사과정 동료집단의 피드백을 취합하고 미술치료학과 교수의 슈퍼비전을 종합해 수정 및 보완 후 최종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치료 전공 박사과정 2인이 주 치료사, 보조 치료사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진행했다. 매체는 크레파스, 마커펜, 수채화, 마블링 물감 등의 건식, 습식 드로잉 및 페인팅 매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각 회기에서는 매 회기 인사 및 주제 나눔(10분), 도입(30분), 휴식(5분), 주제별 미술치료 활동(45분), 작품 나눔 및 마무리(30분)로 구조화하여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체 회기에 있어 3회의 집단 내의 개인 작업을 진행한 후 1회의 집단작업이 반복되도록 8회기를 구성했다.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 치료사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성원 개인의 발인과 미술치료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과 상호 피드백을 유도하였고, 지지와 격려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매회기 지지적 분위기와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였다. 위의 기술한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 목적, 매체에 대한 세부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2.2 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한국판 Beck Depression Inventory(K-BDI)로[27,28] 21문항, 4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 범위는 0-63점이다. BDI는 0-9점을 우울하지 않음, 10-15점을 가벼운 우울, 16-23을 중간 정도 우울, 24-63을 심한 우울로 분류된다[28,29].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였다.

2.2.3 직무만족 척도

본 연구의 직무만족 척도는 Kalleberg[29,30]의 5문항과 이성운[30,31]의 2문항을 수정 재구성한 이병록[31,32]의 직무 만족 8문항을 사용했다. 본 문항은 '나는 내 업무에 만족한다', '나는 내 업무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일을 친구에게 추천하고싶다' 등이며, 각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Table 2. Group Art therapy Program

	Theme	Purpose	Medium
1	Nick name card, Connecting drawings	Building rapport	crayon, color pencil
2	Emotional Mandala, Wet Painting	Exploring Inner space	watercolor painting
3	Handling negative emotion	Knowing stress situation	papers, crayon
4	Group Drawing	Self-expressing group cohesion	watercolor painting, crayon
5	Reconstruction Masterpiece painting	Strengthening psychological resources	painting copies, glue
6	Paper marbling, Calligraphy	Inspire positivity	marbling painting
7	Hope Lantern	Self affirmation	paper lantern, glue
8	Group Wing painting	Integration, Strengthening	watercolor painting, markers

2.3 연구 대상

충청도 지방 A 시청에서 본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6~8급 실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무선 표집하여 20명을 선정하고, 무선배정을 통해 실험군 10명, 대조군 10명을 선정했다. 연구 대상은 30대~50대이며 근무 기간 2년 이상~24년 이상의 행정직급 공무원으로 행정지원과 민원응대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한 동질성 검증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우울, 직무만족 점수에서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동질했다($p>.05$).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 동질성 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3. Participants' background information

		Sex	Age	Grade of Civil Servant	Working period of A city hall
Experimental Group	A	M	46	8	5 years
	B	F	52	6	15 years
	C	F	38	8	4 years
	D	F	45	6	5 years
	E	F	51	6	24 years
	F	M	33	8	2 years
	G	F	31	7	4 years
	H	F	36	8	2 years
	I	F	31	8	3 years
	J	F	47	7	6 years
Control Group	K	F	35	7	7 years
	L	M	39	6	13 years
	M	F	31	7	7 years
	N	M	44	7	8 years
	O	F	34	7	10 years
	P	M	39	8	4 years
	Q	F	42	7	12 years
	R	F	34	7	7 years
	S	M	50	8	5 years
	T	M	35	7	6 years

Table 4. The equivalence pretesting (t-test) scores of participants' Depression Inventory and Job Satisfaction

	Group	M	SD	t	p
Beck Depression Inventory	experimental	14.8	5.47	-1.06	.30
	control	17.8	5.50		
Job Satisfaction	experimental	59.9	15.69	.95	.35
	control	53.2	15.83		

*p<.05

2.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K-BDI 척도를 통해 나타난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수행했다.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직무 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척도상 실험군과 대조군의 실험 전·후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수행했다.

3. 연구 결과

3.1 우울의 사전 사후 변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하였다. 실험군의 사전검사 평균은 14.8, 표준편차는 5.47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10.9, 표준편차는 4.07이다.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완화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3.97, p<.01$). 반면, 대조군의 사전검사 평균은 17.4 표준편차는 5.50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22 표준편차 11.74로 우울 점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우울 수준은 가벼운 우울 범주 내에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의 우울 수준은 중간 정도 우울 범주 내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실험군의 표준편차에 비해 대조군의 표준편차가 크게 늘어나 실험군의 경우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가 크지 않음에 비해 대조군의 표준편차는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 점수를 감소시키며 편차의 격차를 조절하여 우울 완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나타낸다. 본 내용은 Table 5, Fig. 1과 같다.

Table 5. Result of t-test for scores difference in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Depression Inventory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Experimental	14.8	5.47	10.9	4.07	3.97	0.003**
Control	17.4	5.50	22	11.74	-1.34	0.21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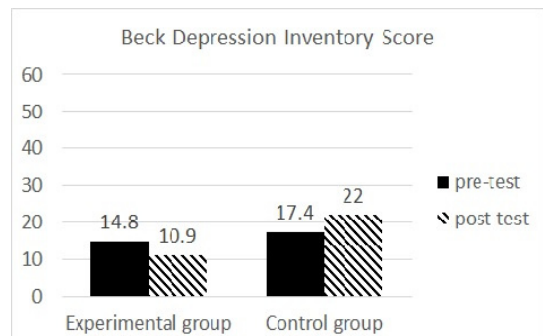


Fig. 1. Scores difference in Beck Depression Inventory

3.2 직무만족의 사전 사후 변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 점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6, Fig. 2와 같다. 실험군의 사전검사 평균은 59.86, 표준편차는 15.69이고 사후검사 평균은 66.06, 표준편차는 15.35다. 실험군은 사전 직무만족 점수에 비하여 사후 직무만족 점수가 상승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18, p<.01$). 반면, 대조군의 경우 사후 점수에서 직무만족 점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집단미술치료가 지방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6. Result of t-test for scores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Experimental	59.86	15.69	66.06	15.35	-4.18	0.002**
Control	53.16	15.83	37.31	14.31	3.61	0.006**

**p<.01



Fig. 2. Scores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충청북도 A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한 결과 실험군의 우울은 대조군의 우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실험군 참여자들의 성비가 여성과 남성 8 : 2의 비율로 구성되었지만 인구 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 32]. 공무원 대상의 우울 완화 목적의 미술치료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가 어려웠다. 하지만, 박현희 등[33]의 연구

에서 CES-D척도[34]로 지방 공무원의 우울 점수를 측정 한 결과 행정직 공무원의 우울 점수가 14.46으로 소방공무원 12.26[35], 사회복지공무원 12.50[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명제와 김계희[34]의 연구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은(27.7%) 국내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8,096명에 대한 우울에 대한 결과(15.9%)보다 높았다[37]. 이 연구 결과들은 특수직 공무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관심과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대조군의 사후 우울 점수의 편차 범위가 대조군의 사전 우울 점수의 편차에 비해 늘어났다. 반면 실험군의 사후 우울 점수의 편차 범위는 실험군의 사전 우울 점수의 편차와 큰 차이 없이 평균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1년 중 4분기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일반적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긴장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실험군의 우울은 감소하고 대조군의 우울은 증가하며 대조군의 표준편차가 실험군에 비해 늘어난 결과는 집단미술치료가 충청북도 A 시청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공무원들의 우울을 완화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유진 등의 선행연구[24] 결과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요구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박현희 등[33]의 연구에서는 직무요구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한 가지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선행연구[24]에서 집단미술치료의 직무요구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와 본 연구의 집단미술치료의 우울 완화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유선영 등[8]의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업무수행 중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의 위협도를 9배까지 높이므로 조직 내 지지적 분위기의 축진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본 연구에서 House[28]의 지지적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집단에서 상호 간 지지를 충분히 경험하게 한 방향성이 유효했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 스트레스, 우울을 변인으로 한 미술치료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지방 공무원의 우울 완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집단미술치료를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충청북도 지방 A

시청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의 직무만족 점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대조군의 직무만족 점수는 감소했다. 이 결과는 황해경 등 [22]의 연구에서 집단미술치료가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결과요인 중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엄태순과 김현실[2]의 연구에서는 직무만족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직무만족과 우울은 역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대조군의 직무만족이 감소하고 우울이 증가된 결과에서 보이는 역상관 관계와 맥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험군의 우울의 유의미한 감소와 직무만족의 유의미한 상승이라는 결과를 통해 집단미술치료가 일 지방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는 존재하지 않아[4] 직무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충청북도 지방 A 시청 공무원들에게만 유용하며, 표본의 대표성이 전체 지방 공무원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최초로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의 우울, 직무만족에 대한 개인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 향상, 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선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변화는 실시 전에 비해 지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는 “중앙 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이 국정 개혁 100대 과제 중 하나였고[3], 참여정부에서는 지방 분권화가 국정과제의 주요 사안이었던 만큼[4] 지방자치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제도로 기능해왔다. 지방 공무원의 대민업무도 증가 되었는데, 사회통제 기능과 관련되는 공무원의 대 주민 업무는 시민의 권리와 연관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4].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직무 불만족,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부정적 요인은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 개인의 건강 측면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1,2,5]. 호텔 조직의 우울감과 서비스 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38] 우울감이 클수록 고객들에 대한 종사원의 서비스 의지는 낮아지며 우

울감과 서비스 지향성의 부(-)적 상관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지방 공무원의 우울감 역시 각종 민원을 비롯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 삶의 만족에 대한 재고는 개인의 정신건강 관리 측면에만 유익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에서도 지방 정부 조직에 중요하다[1-3,15]. 직무만족은 조직 성과와는 정적인 관련성이, 이직 의도와는 부적인 상관성 확인되어[15] 직무만족감을 높여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적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조직 구성원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사실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39]. 이렇게 우울과 직무만족 요인은 모두 개인은 물론 조직 생산성과도 연관되며 이는 외부 서비스 지향성과도 상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조직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지방자치제로의 행정환경의 변화, 성과 중심적 대응방식으로 인한 경쟁 심화, 지식 정보화 사회의 가속화로 인한 공무원 개인 역량 개발에 따른 부담은 지방 공무원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긍정적 결과는 삶의 질과 삶의 만족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삶의 만족의 향상은 개인적 건강관리를 넘어 조직 생산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미술치료가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지방 공무원에 대한 효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우울과 직무만족에 대한 효과를 검증했지만 공무원 개인의 정신 건강에서 출발하여 조직 내 생산성, 주민 서비스의 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결과를 통해 유추하고자 하였다. 향후 일반화가 가능한 연구설계를 통한 지속적인 검증과 함께 집단미술치료 효과 지속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이뤄지기를 제언한다. 나아가, 지방 공무원의 우울과 직무만족 등의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 집단미술치료 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C. S. Choi. (2000). *A Study on the Job Satisfaction of Local Public Serva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 T. S. Um & H. S. Kim. (2013). Impacts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Servants. *Health and social science* 34, 135-158.
- [3] M. N. Kim. (2005). A Self-governing System and Historical Formation of Public Personnel Institution in Local Self-Government.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6(1), 105-129.
- [4] D. Jaegal & T. H. Kim. (2007).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1(3), 7-34.
- [5] K. G. Park. (200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Local Administration Review*, 22(2), 171-202.
DOI : 10.22783/krila.2008.22.2.171
- [6] J. K. Choi. (2011). *A Study of Job Stress of Local government employe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7] J. Y. Park. (2008). The Competition and Self-improvement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Neoliberal Era.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pp. 969-984).
- [8] S. Y. Yoo et al. (2019).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among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xiety and mood* 15(2), 84-93.
- [9] J. K. Tak & H. J. Yoon. (2002). Development of the Job Stressor Scale for Local Civil Serva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2), 197-210.
- [10]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2021). *Stress at work*.
<http://www.cdc.gov/niosh/docs/99-101>
- [11] M. J. Kim & Y. T. Kim. (2008). A Study on Job Stress Effecting on Depression and its influence on intention of Turnover, Job Performance, Job Loyalty and Organizational Loyalty: Focused on employees in Convention Industry.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31(5), 203-223.
- [12] S. H. Yoon. (2009).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Using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3), 463-470.
- [13] N. Dragano, Y. He, S. Moebus, K. H. Jockel & J. Siegrist. (2008). Two models of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3, 72-78.
- [14] H. K. Lee & C. Y. Nam. (2015). The Effects of Job Stres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n Job Satisfaction of Office Work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4), 489-497.
DOI : 10.5977/jkasne.2015.21.4.490.
- [15] I. S. Oh et al. (2007). Relationships among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Performance, and Turnover Intention: A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with Korean Sample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5(4), 43-86.
- [16] A. O. Agho, C. W. Mueller & J. L. Price. (1993). Determinants of Employee Job Satisfaction: An Empirical Test of a Causal Model. *Human Relations*, 46, 1007-1027.
DOI: 10.1177/001872679304600806
- [17] M. Tait, M. Y. Padgett & T. T. Baldwin. (1989). Job and Life Satisfaction: A Reevaluation of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and Gender Effects as a Function of the Date of the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3), 502-507.
DOI : 10.1037/0021-9010.74.3.502
- [18] H. Wadson. (1987). *The Dynamics of Art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 & Son.
- [19] Y. J. Chung. (2016). The Characteristics of Art and the Therapeutic Meaning of the Creative Process in Art Therapy.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3(5), 1221-1237.
DOI : 10.35594/kata.2016.23.5.001
- [20] C. Blomdahl, B. A. Gunnarsson, S. Guregard, M. Rusner & H. Wijk. (2016). Art therapy for patients with depression: expert opinions on its main aspect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ental Health*, 25(6), 527-535.
- [21] H. K. Hwang, E. Y. Choi & C. G. Chun. (2006).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to the Public Official's Job Stres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2), 325-345.
- [22] M. H. Kim, S. M. Cheon & S. K. Kim. (2014). A Meta-Analysis of the Group Psychotherapy Effect on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1), 1-28.
- [23] Y. J. Jung, Y. J. Chung, H. C. Cho & H. E. Cho. (2019). The Effects of Social-Supportive Group Art Therapy o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26(2), 389-406.
DOI: 10.35594/kata.2019.26.2.008
- [24] H. Y. Choi. (2020). The Effect of Emotional Centered Group Art Therapy on the Job Stress of the Correctional Public Officials. *Korean Journal of Correctional Counseling*, 5(1), 35-59.
- [25] I. D. Yalom & M. Leszcz. (2008).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26] J. S. House.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 Co.

- [27] M. K. Rhee et al. (1995). A Standardization Study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I- Korean Version(K-BDI):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4(1), 77-95.
- [28] A. T. Beck.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29] A. L. Kalleberg. (1977). Work Values and Job Rewards: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124-143.
- [30] S. Y. Lee.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intent to leave among social workers in old people's welfare facilities*.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31] B. R. Lee. (2012). A Study of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4), 123-150. DOI: 10.15709/hswr.2012.32.4.123
- [32] J. A. Park. (2004). *Job-Stress and Depression in Central Public Administerial Official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33] H. H. Park, S. Y. Ryu, B. E. Kim, I. A. Chun & M. G. Kim. (2013). The Associated Domains of Job Stress for the Depression among Local Public Officials.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 8(9), 1373-1381. DOI: 10.13067/JKIECS.2013.8.9.1373
- [34] M. J. Cho & G. H.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 R Major Depression.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3), 381-399. *Public Health Worker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35] T. O. Kim, G. S. Kim & Y. S. Ahn. (2010).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Field Fire fighter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22(4), 378-387.
- [36] Y. S. Jung. (2004). *A comparative study on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Social Worker and Public Health Worker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37] S. H. Chu, H. C. Ryu, K. J. Bae, J. C. Song, S. J. Lee & L. A. Kim. (2010).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Bankers. *Korean Journal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22(4), 316-323.
- [38] K. H. Lee. (2009). The Study on Structural Relation among Culture of Hotel Organization, Job Stress, Depression, and Service Orientation : Focused on Deluxe Hotel in Busan. *Journal of Turism and Lesure Research*, 21(1), 269-285.
- [39] H. M. Ra & Y. H. Kim. (2004). A Study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the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Public service in Local Government.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6(2), 37-59.

조 희 정(Hee-Chung Cho)

[정회원]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 전공(미술학사)
- 2015년 8월 :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대학원(임상미술치료학석사)
- 2021년 2월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임상미술치료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평온 미술심리치료 연구소 대표
- 관심분야 : 미술치료, 상담심리
- E-Mail : serenity.atrc@gmail.com

정 유 진(Yu-Jin Jung)

[정회원]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판화전공 (미술학사)
- 2012년 8월 : 차의과학대학교 임상미술치료전공(임상미술치료학석사)
- 2021년 2월 : 차의과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임상미술치료전공(임상미술치료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외래강사
- 관심분야 : 미술치료
- E-Mail : eugene.artlab@gmail.com